

AI·빅데이터로 기업분석 척척... 설 곳 잃은 증권사 애널

한투증권, 연구원 20명 부서 옮겨 5개 리서치센터부서 3개로 통합

증권사 애널리스트 10년새 31% ↓ 코스콤·씽크폴 등 AI 플랫폼 출시

‘기업분석’의 대명사로 불리는 애널리스트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기업분석과 주식매매까지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어서다.

최근 금융 AI 벤처기업 씽크폴이 주문비서라 불리는 ‘라씨트레이더’를 선보인데 이어 코스콤의 야심작 ‘로보애널리스트’도 올해 상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가 리서치센터 역할을 대신하며 자연스레 애널리스트의 역할과 영향력은 줄어들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 ‘전보 혹은 이직’... 리서치센터의 축소 지난해부터 감지됐던 리서치센터 인력 축소 분위기는 올해 신년 인사에서도 피해가지 못했다. 대형사와 중소형사 할 것 없이 많은 애널리스트가 전보 조치를 받았다. 120여명의 연구원 중 약 20명을 타 부서로 옮긴 한국투자증권이 대표적이다. 한투증권은 기업금융(IB)

〈씽크폴의 ‘로봇 알고리즘’ 분석 결과〉

종목명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	종합점수	퀀트재무순위
에이아이비트	3.0	4.6	6.4	16.7	2/4
오성첨단소재	9.1	9.0	4.2	52.0	1/4
세미콘라이트	5.2	7.4	0.6	11.9	3/4
뉴프라이드	5.2	6.3	0.5	8.6	4/4
테마평균	5.6	6.8	2.9	22.3	

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에 5개이던 리서치센터 부서를 3개로 통합했다. 이직도 많았다. 송치호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AI 스타트업체 ‘퓨리오사’로 자리를 옮겼다.

세대교체에 나선 곳도 여럿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양기인 리서치센터장의 후임으로 윤창용 센터장을 낙점했다. 윤 센터장은 1977년생이다.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를 이끌던 구용욱 전 센터장은 Sage솔루션본부장으로 보직을 바꿨다.

제구실을 못하는 리서치센터도 생겨났다. 지난 2018년 14명의 애널리스트가 활동하던 BNK투자증권 리서치센터는 지난해 대다수가 인사이동하거나 퇴직하며 현재는 5명뿐이다. 회사 측은 “아직까지 추가적인 채용 계획은 없다”

고 했다. 증권가에선 BNK투자증권 리서치센터가 사실상 해체수준을 낮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양증권도 상황이 비슷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리서치센터 부서원 몇 명이 인사이동으로 떠났다”며 “당분간 리서치 자료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애널리스트의 업무 영역에도 문제가 생겼다. 10년 이상 근무한 한 제약바이오 담당 애널리스트는 “옛날과 달리 기업의 실적이나 주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요소들이 복잡해졌다. 분석하기가 쉽지 않아졌다”고 말했다.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도 없을뿐더러 글로벌 약재 등 추가적인 변수가 많아진 만큼 명확한 의견을 내기 힘들어졌다는 설명이다.

애널리스트들의 수는 매년 줄고 있

다.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사 57곳에 등록된 애널리스트는 총 1087명이다. 1575명이었던 2010년과 비교하면 31%나 감소했다. 증권사들이 IB와 자산관리(WM) 위주로 사업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리서치센터가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 투자자들의 ‘정보 창구’, 이젠 AI가 머지않아 AI가 투자자들의 ‘정보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리서치센터가 축소되며 상장기업에 대한 분석 리포트도 줄게 됐지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 얘기다.

코스콤은 올 상반기 ‘로보애널리스트’를 출시한다. 데이터 오피스를 기반으로 분석된 자료를 AI가 투자자들에게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플랫폼이다.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한 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시장 반응, 추가 상승 등 정보를 공유한다. 고객은 주식을 팔고자 할 때 자신의 투자성향과 자산 포트폴리오에 맞게 새로운 종목을 추천받을 수 있다.

코스콤 관계자는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로보애널리스트 역시 발전할 것”이라며 “한 증권사와 협의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씽크폴이 출시한 ‘라씨트레이더’도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라씨트레이더는 딥러닝 기반의 AI주문 집행 서비스다. 효과적인 주문 체결을 위해 제작됐지만 AI주문전략서버가 예측한 주식시장, 업종, 종목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공유받을 수 있다. 씽크폴에서 출시한 라씨의 한 구성 부분인 ‘R2’는 데이터를 분석해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애널리스트의 역할을 한다.

씽크폴 관계자는 “그동안 로봇 투자는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활용돼왔지만 머지않아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상용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기술을 고도화해 소액 투자자에게도 맞춤형 투자정보를 비롯한 과학적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19년 12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해 말 외환보유액은 4088억 2000만달러로 전월 대비 13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지난해 10월에 이어 3개월 연속 역대 최대 규모다. /연합뉴스

외환보유액 4088억弗... 3개월째 사상최대

작년 말 13.6억 달러 증가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석 달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19년 12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해 말 외환보유액은 4088억2000만달러로 전월 대비 13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지난해 10월에 이어 3개월 연속 역대 최대 규모다.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한 건 미 달러화 약세로 유로화, 엔화 등 기타 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지난달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미 달러화 지수(DXY)는 96.74로 전월보다 1.7% 하락했다.

국채와 정부채, 회사채, 자산유동화

증권(MBS) 등 유가증권은 3850억2000만달러로 전월 대비 85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반면 해외 중앙은행이나 글로벌 은행 등에 있는 현금성 자산인 예치금은 128억5000만달러로 73억1000만달러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국제통화기금(IMF) SDR(특별인출권)은 33억5000만달러로 2000만달러 줄었고, IMF 포지션은 27억9000만달러로 1억7000만달러 늘었다. 금은 47억9000만달러로 전월과 같았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4075억달러)은 홍콩(4342억달러)의 뒤를 이어 세계 9위 수준을 유지했다. 1위는 중국(3조956억달러), 2위는 일본(1조3173억달러), 3위는 스위스(8366억달러)로 자리를 지켰다. /김희주 기자

‘현금없는 사회’ 편리함 이면에 부작용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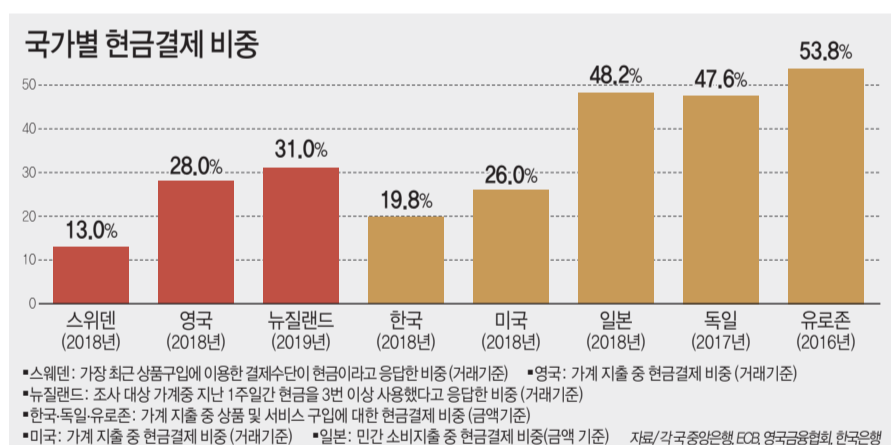
국가별 현금결제비중 2018년 기준 스웨덴 13%, 영국 28%, 뉴질랜드 31%

고령·취약계층 등 불편 겪어 ‘우려’ 대규모 정전때 대체 지급수단 없어

2000년대 이후 신용카드, 모바일 지급수단 등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 활성화로 현금사용이 감소하면서 ‘현금없는 사회’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하지만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소비활동 제약 등 그에 따른 부작용도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6일 발간한 ‘최근 현금없는 사회 진전 국가들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별 현금결제 비중(거래기준)은 스웨덴이 2018년 기준 13%, 영국은 28%, 뉴질랜드 31%로 집계됐다.

현금없는 사회란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대체로 동전, 지폐를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 등 비현금 지급수단을 사용하는 비중이 90%가량 되는 사회를 지칭한다.



이들 국가에서는 ▲ATM 등 현금공급 창구 축소에 따른 국민의 현금 접근성 약화 ▲취약계층의 금융소외·소비활동 제약 ▲최종 결제수단으로써 현금 사용 선택권을 보장하는 공적 화폐유통 시스템 약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의 경우 중앙은행(리クス뱅크)의 조사 결과 현금결제를 거부당한 경험에 있다는 응답자 비중이 2014년 27%에서 2018년 45%로 크게 늘었다. 스웨덴 상업은행 지점 중 현금 취급 지점 수는 2008년 말 1777곳에서 2014년

말 733곳으로 1000곳 넘게 사라졌다. 영국, 뉴질랜드도 2010년대 들어 상업은행 지점 수가 급격히 줄었다. 2018년 기준 은행 지점 수는 2011년 대비 스웨덴은 33.2%, 영국은 23.4%, 뉴질랜드는 29%씩 감소했다. ATM 수도 2014년 대비 스웨덴 21.2%, 영국 11.4%, 뉴질랜드 7.3% 줄어들었다.

한은은 “현금없는 사회로의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대응책 마련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 hj89@

AI기업 루닛, 300억 시리즈C 투자유치

의료 인공지능(AI) 대표기업 루닛이 국내외 7개 기관 투자자로부터 300억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 유치를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 주주인 중국 최대 벤처캐피탈(VC) 레전드캐피탈을 비롯해 인터베스트, IMM인베스트먼트, 카카오벤처스

가 추가 투자에 참여했으며, 신규 투자자로는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LG CNS가 합류했다.

이번 투자 라운드에 앵커 투자자로 참여한 신한금융투자의 김혜진 팀장은 “전 세계적으로 병리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

며 “실제로 AI 병리 바이오마커에 대한 글로벌 빅파마(제약 및 바이오 의약 개발에 집중하는 회사 중 매출액이 연간 150억 달러 이상인 기업)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루닛이 개발 중인 디지털화된 암 조직 병리 영상 AI 분석 플랫폼인 ‘루닛 스코프’를 활용한 항암제 반응성 예측 모델에 대한 가치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했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